

6. 일제시대

1914년에는 순천 관내의 21면이 다음과 같이 14면으로 폐합되었다. 순천면(소안면과 장평면을 통합), 해룡면(해촌면과 용두면을 통합), 서면, 황전면, 월등면, 쌍암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읍내면과 내서면을 통합), 동초면(동상면·동하면·초상면·초하면을 통합), 별량면, 도사면(도리면과 하사면을 통합), 상사면으로 통폐합되었다.

면 명	리 명
순천면(21리)	규곡리 석현리 용당리 매곡리 동외리 대수리 행 정 본 정 영 정 금곡리 옥천리 와룡리 삼거리 주곡리 생목리 덕암리 저전리 장천리 인제리 남정리 풍덕리
해룡면(21리)	왕지리 조례리 연향리 대안리 복성리 신대리 상삼리 남규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고두리 용전리 도룡리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농주리 하사리 상내리
서 면(14리)	학구리 대구리 구만리 비월리 동산리 운평리 죽평리 선평리 압곡리 구상리 흥대리 지본리 판교리 청소리
황전면(16리)	비촌리 선번리 금평리 대치리 내구리 봉덕리 월산리 죽내리 괴목리 수평리 황학리 모전리 회룡리 덕림리 평촌리 죽청리
월등면(10리)	농선리 월룡리 대평리 신월리 운월리 갈평리 송천리 월림리 망용리 규월리
쌍암면(15리)	월계리 신성리 서평리 구강리 도정리 신학리 죽학리 유평리 남강리 석흥리 평중리 봉덕리 신전리 유흥리 두월리
주암면(19리)	항정리 갈마리 주암리 오산리 창촌리 복다리 삼곡리 죽림리 고산리 풍교리 구산리 대광리 광천리 비룡리 한곡리 어왕리 백록리 대구리 궁각리
송광면(14리)	오봉리 신흥리 시평리 낙수리 삼청리 후곡리 월산리 대곡리 덕산리 봉산리 이읍리 장안리 구룡리 대흥리
상사면(11리)	흠산리 응형리 용계리 도월리 봉래리 쌍지리 초곡리 용암리 비촌리 오곡리 마륜리
별량면(11리)	우산리 쌍림리 학산리 무풍리 대곡리 마산리 동송리 봉림리 운천리 송학리 덕정리
도사면(9리)	교량리 흥내리 오천리 덕월리 야흥리 안월리 안풍리 하대리 대룡리
낙안면(14리)	동내리 서내리 남내리 평촌리 성북리 상송리 교촌리 검암리 하송리 목촌리 평사리 금산리 창령리 옥산리
동초면(16리)	내운리 용흥리 이곡리 신기리 연산리 봉림리 회정리 장양리 호동리 금치리 죽산리 송기리 구룡리 두용리 대룡리 원창리
외서면(8리)	신덕리 쌍룡리 금성리 월암리 도신리 화전리 장산리 반룡리

그뒤 1929년 4월 1일에는 동초면이 폐지되고 관할지역이 이웃 면에 분속됨으로써 군의 면적이 축소되었다. 즉, 옛 동초면의 구역 중 1914년 이전의 옛 동상면 지역이 낙안면에, 초상면과 초하면 북부가 별량면에, 그리고 동하면과 초하면 남부가 보성군 별교면에 각각 병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31년에는 읍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그해 11월 1일에 순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